

하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을 마치다.

하계 일본 단기 인턴십 후기

문화콘텐츠학과

201623532 김예진

2018년 1학기는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기억으로 남게 된 것이 바로 이번 국제학부에서 주최한 하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입니다. 처음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한 것은 단순히 일본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OJT를 통해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막연한 미래 계획을 조금이나마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OJT는 총 5박 6일간의 일정 중 2박 3일간만 회사에 출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OJT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뜻 깊게 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OJT는 예년과 같은 大興(다이코) 그룹의 다이코-IWS(다이코 IWS)에서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첫 날은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OJT에 관련된 회사의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OJT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직 취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학생이기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회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이코 기업이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이코 기업은 자동차 설비와 관련된 업무 외에도 이를 위한 번역과 통역 분야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IT 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이와 더불어 파견 사원 분야까지 진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전 새롭게 분리되어 세워진 다이코 IWS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회사의 국적과 분야에 상관없이 영어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점이 가장 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다소 소홀할 수 있었던 영어 공부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외국이기에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깊고 객관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

여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해당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과도한 편애가 아닌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추론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 오후부터는 언어 기술과 수찰(推察)게임, 사막 게임 총 3가지 활동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언어 기술 교육에선 자신에게 주어진 그림을 보고 상대방에게 설명하여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막상 시작하니 굉장히 막연하게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언덕 위라고 생각하여 말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언덕을 덮은 위를 생각하게끔 했으며, 물결치는 모양이라는 단어도 타인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다의적인 뜻을 품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행 후,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눈에는 이미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림의 규격 혹은 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중하고 분명한 단어 선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한 단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찰'이란 '미루어 살피다.'라는 뜻으로, 수찰 게임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잘 정리하여 이를 통해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가지 사건에 관한 15가지의 단서가 제공해 이를 통해 범인을 추리해내는 활동이었습니다. 평소 이러한 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적 재미있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단서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과감한 선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과감한 선택 후에는 반드시 꼼꼼한 확인을 통해 선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사막 게임은 사막에 불시착했을 경우 가장 필요한 것에 순번을 매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각만으로 한 번, 각자의 의견을 모아 그룹의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개인의 의견만으로 생각했을 때와 비교하여 그룹으로 생각했을 때 더욱 현명한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이기도 하며, 서로의 의견 교환 중 새로운 정보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막 게임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공유함을 통해, 의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는 연수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의 일정은 개개인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둘째날은 일본의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일본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국의 서비스와 다른 점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이든 매뉴얼이라는 기본 지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매뉴얼이 굉장히 세세하여 이를 지키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어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매뉴얼을 기본 지침으로 하되 해당 상황에 맞는 업무자의 현명하고 즉각적인 판단도 같이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양측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식으로 서비스를 바라보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육은 저번 OJT까지는 프로그래밍 교육도 진행됐었지만, 이번 OJT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번 OJT에서 생략되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초심자에게 프로그래밍을 어떠한 식으로 교육시키고, 과제의 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으나 이번 기회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음 OJT에 참여하는 인원은 접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이후, 바로 마지막날의 PPT 발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는 이번 OJT에서 느낀 점과 취직을 위해 준비할 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15분간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준비와 같이 퇴근 시간 즈음에 어제 작성했던 연수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어나 잘못된 단어 사용, 자연스러운 문장에 대한 설명을 개개인에 맞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출근 후의 시간 모두 발표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14시 30분에 각자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발표를 듣는 것은 개인에 생각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신선하

게 다가왔습니다. 각각의 발표를 경청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 발표에서 궁금한 점과 보완점을 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고 받았습니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연수 보고서와 발표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치 못했던 부분에서의 실수를 찾아내고, 이번 OJT 중에서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 식으로 비쳤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회사의 모든 분들께 인사를 한 후 OJT 증서를 수료함으로써 이번 하계 일본 단기 인턴십을 마쳤습니다.

이번 인턴십 동안의 연수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亜細亚大学校 OJT 研修報告書」			
名前	キムイェジン	日付	2018.7.17
学んだ事			
1.	大東グループについてのガイダンス		
2.	ダイコーIWBについてのガイダンス		
3.	会社内でのパソコンの使い方		
4.	他人に自分が思っていることを確実に伝える方法		
5.	推察ゲームと対漢ゲームを通して理解力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大事さ		
感想(学んだこと、気づいたことなど)			
<p>1. 大東グループについて詳しい説明を聞きました。以前、一人でホームページだけを見て理解しようとした時よりも理解しやすかったです。</p> <p>2. 大東グループでの派遣社員が目録や案内図をわかることができました。</p> <p>3. 音程から、周りの人から内容が理解できないと、言われるために直したいと思いました。今回の「言語技術」の研修を通して、話し相手にどうやって自分が見ていることや思っていることを確実に伝えたいかを学びました。相手に何を言葉で伝える時は、大事な結論を中心としてから、正しくて細かい補足を順番にしたほうが良い、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又、正しい言葉の使い方がもっとも大事なことだと実感しました。日本語だけではなく、他の言語も含めて、これからは言語力を高めるため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p> <p>4. 音程は想像を気にしないまま進捗するので、この度、深く考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問題が複雑でも、その中のヒントをまとめ、一つ一つの謎をひかめることが大事だと感じました。</p> <p>5. 又、一人で出した答えも重要ですが、異国行動が必要とされる時は、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大事だというのを知りました。それと共に、異国で出した結果に疑うことも、必ず必要だとわかりました。</p> <p>6. 最近他人と意見を交換しながら、話を合わせることはなかなかなかったもので、この対漢ゲームをやったのはすごく楽しいことでした。</p>			
その他			
出勤日だったため、わくわく感と共に緊張感もありました。会社の文化を学び、IT企業についてもっとなっとんできたような気がしました。たくさんのミスをしたと思います。まだまだ未熟なところが多いですが、この1泊3日頑張ります。			

「亜細亚大学校 OJT 研修報告書」			
名前	キムイェジン	日付	2018.7.19
学んだ事			
1.	研修課		
2.	発表の姿勢		
3.	発表		
感想(学んだこと、気づいたことなど)			
<p>会社での決まりやルールをわかりました。発表については、私個人的に、発表の準備はいつも1週間前にかけています。内容の整理と PPT 作成、発表文の準備の順でやっています。いつも発表文の準備は大変なことだと感じています。</p> <p>書いた通り、自然と言いながら、完璧にできることは着目から難しいと感じていました。今回は自分が思う存分、自然とやっていくのを目標としました。</p> <p>ミスした部分が多かった発表ですが、その時の最大の力を出した発表でした。短い発表でしたが、それに対するコメントをもらったのが嬉しかったです。また、PPT を作る時の注意する部分をおこれからは気をつけたいと思いました。情報の大事さも再び感じました。</p> <p>日本に就職したいと思ったことはなかったです。幅広い視野でしたが、難しくて合わ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でもこの OJT をきっかけとしてもっと色々な領域を持ちたいとおもいました。どこに就職しても、そのどこの文化に自分が必要にな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それが韓国であるうが、日本であるうが、ヨーロッパであるうが、経験する姿勢で向き合いたいと思います。新しい領域を探すのではなく、自分が楽しめるよう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そして自分に自信を持ち、自信を持つ人になれるよう、頑張ります。楽しさというものの大事さを感じました。</p> <p>もっと長く続けたらな、と思えるぐらい、すごく楽しい経験でした。</p>			
その他			
今日はインタビュの最終日でした。本場に短い間だったのですが、すごく楽しい経験でした。もっと緊張感に近づけたらな、と後悔はともありませんが嬉しい結果だと思います。お忙しい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場に素敵な経験でした。			

매일매일 이러한 형태로 일본어 문장을 적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조금 더 나은 글로서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뜻 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의 교육은 모두 와타나베(渡辺)상께서 담당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친절하게 하루

하루의 일과를 질문해주시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면 상냥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자신의 회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엔 회사 측에서 점심을 제공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얘기를 하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상냥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받는 에너지를 이번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턴십 일정이 끝난 다음 날은 학생 개인 자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자유감도 느낄 수 있었으며,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OJT 기간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다음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길게 진행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제 국외 기업에 가서 그 곳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 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도 만끽할 수 있으며, 회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취직하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OJT를 통해 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대학교에서 더욱 많은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 나갔으면 싶습니다.